

Molet

Blue Revolution



Everywhere Better

Molet

Editor Bae Danbee
Photographer Jun Yeseul

팔레트^{Pallet}는 나무판과 나무판을 이어 붙여 만든 대형 화물 운반대다. 언젠가 건축 현장이나 공사 현장에서 팔레트들이 높이 쌓여 층을 이룬 모습을 본 적이 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았지만 팔레트의 용도를 어렵잖이 알고 있었다. 무거운 자재 등이 목적지에 옮겨지고 건물이 들어서고 난 뒤, 도시 어딘가에 남겨진 팔레트도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건축가였던 아리 리버슨^{Ari Liberson}은 아마도 그 팔레트를 다른 이보다 조금 오래 들여다보았을 것이다. 그는 멀쩡하게 살아남은 팔레트, 작은 흠집이 난 팔레트를 모아 깎고 다듬어 자신이 만들고 싶었던 것을 만들기 시작했다. 파란 티셔츠를 입고, 밝은 힘을 가진 손으로.





1. 몰레트의 워크숍에는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참여한다.

2. 2층에서 바라본 몰레트 하우스의 전경. 2층은 코워킹 스페이스이자 몰레트가 다양한 기획을 논의하는 공간이다.



2.

Everywhere Better

Molet

업사이클 디자인 스튜디오 ‘몰레트^{Molet}’는 ‘당신의 목재 팔레트를 맞추다^{Modulate your pallet}’라는 의미를 함축한 이름이다. 버려진 목재 팔레트가 나만의 도구나 가구로 새롭게 맞춰지고, 그 과정에서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목재로 만들어진 팔레트는 주로 건축이나 공사 현장에서 대형 화물을 운반할 때 사용한다. 쓰다 남은 팔레트는 거리에 버려진 뒤 방치되고는 한다. 팔레트는 생각보다 단단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많다. 우리는 버려진 팔레트의 활용에 주목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사람들이 직접 손으로 자신만의 물건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랐다. 버려진 팔레트는 업사이클링을 통해 집, 학교, 회사 등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한다. 이 과정에서 지속 가능하고 모듈적인 공간과 환경이 탄생하는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모든 성별, 나이, 직업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팔레트를 활용해 도구나 가구를 만든다. 사람들은 스스로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게 되고, 이것은 우리의 큰 기쁨이자 보람이다. 몰레트는 현재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 스튜디오가 있고, 멕시코에 세 번째 스튜디오 오픈을 준비하며 전 세계에 지속 가능성의 활동을 확산시켜나가고 있다.

몰레트가 지닌 자유롭고 독창적인 분위기는 이곳을 운영해나가는 운영자들의 영향이 큰 것 같다. 당신과 함께 어떤 사람들이 몰레트를 운영하나?

몰레트는 10명 이상의 창의적인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파트마다 담당 인력이 있다. 나를 포함한 세 명의 공동 설립자이자 파트너, 디자이너, 콘텐츠 매니저, 크리에이티브 어드바이저, 코디네이터 등이 몰레트를 함께 운영해나간다. 공동 설립자인 엘리 사르^{Eli Saar}(이하 엘리)는 제품 디자인과 개발을, 아사프 에치온^{Asaf Etzion}(이하 아사프)은 물류 및 운영을 담당한다.

엘리, 아사프와 몰레트를 시작한 계기는 무엇인가?

나의 고향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고, 몰레트의 시작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부터다. 몰레트의 초창기에는 지금처럼 많은 장비와 적당한 작업 공간이 갖춰진 스튜디오가 없었고, 개인적인 취미 활동에 가까웠다. 그때 다른 두 친구와 함께 건축학 학위를 취득한 후 주말마다 만나 먹고 마시며 폐품을 우리 손으로 깎고 다듬어 새로운 물건으로 탄생시키는 매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당시 거리에서 버려진 팔레트를 발견했고, 이후 자연스럽게 팔레트의 가능성과 잠재력에 대해 연구할 수 있었다. 2013년 아르헨티나에서 이스라엘로 떠나왔을 때 엘리와 아사프를 만났다. 둘은 산업 디자이너였고, 나는 건축가였다. 평일에는 각자의 일을 하지만, 일하면서도 문득 직접 손으로 나무를 깎고 다듬던 때가 그리웠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던 두 친구와 매주 토요일에 만나 텔아비브 도시에 버려진 팔레트를 줍기 시작했고, 주운 즉시 이것저것 만들어보았다. 산업디자인을 전공한 친구들 덕분에 함께 디자인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다. 나아가 업사이클 디자인 가구 제작과 함께 DIY 워크숍이라는 아이디어가 정립되며 사람들에게 직접 팔레트로 가구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현재의 몰레트 스튜디오로 발전했다.

취미 활동에서 프로젝트 성격을 지닌 그룹으로 규모를 넓힌 결정적 계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

토요일마다 버려진 팔레트로 가구 등을 만들던 중에 한 사회적 목적의 경연에 참여하게 됐다. 경연의 취지는 빈민가 주택들에 가구를 만들어주는 것이었다. 경연의 취지와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맞아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버려진 팔레트로 업사이클링해 가구를 만드는 데 모듈 시스템을 적용했다. ‘모듈^{Module}’은 더욱 다양하고 미적인 디자인은 물론, 기능적인 물건을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다. 우리의 첫 번째 대외 활동이자 사회 활동인 최초의 경연이 몰레트를 하나의 스튜디오이자 브랜드로 확장하게 한 결정적 계기가 됐다. 비록 경연에서 입상하지는 못했지만, 버려진 팔레트로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일을 계속해서 해보고 싶어졌기 때문이다.



나무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색감과 몰레트의 상징적인 파란색이 조화를 이룬다. 파란색은 이스라엘 국기와 아르헨티나 국기의 공통 색이기도 하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텔아비브로 이주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여러 가지 우연의 일치가 있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결혼한 후 첫딸을 낳은 뒤 아르헨티나를 떠나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살면서 새로운 삶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딱 1년 정도 타국에서 생활해보기로 계획하고 처음 이스라엘의 텔아비브로 왔는데, 어느새 이 도시에 정착하게 됐다. 두 명의 파트너를 만나 함께 몰레트를 발전시켜온 우연과 노력, 지금의 스튜디오를 준비하던 과정, 다양한 워크숍과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해온 시간이 이 도시에 모두 담겨 있다. 가끔은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에 놀라기도 한다.

현재의 스튜디오는 ‘몰레트하우스’로 불린다. 건물을 이루는 기둥, 틀 등을 대부분 나무로 만들었고, 2층의 가운데 공간을 뚫어 1층과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한 독특한 구조다.

지금 이 몰레트하우스를 연 지는 2년이 채 되지 않았다. 몰레트하우스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최대 DIY(Design and Do it Yourself) 프로젝트였다. 전체 지붕을 바꿨고, 공간 설계도 직접 디자인했다. 2년간 버려져 있던 이 공간은 식물 및 금속 관련 산업용 격납고였다. 이 부지를 인수한 뒤 깨끗이 정리하고 탁 트인 공간으로 허물고 넓혔다. 지난한 과정을 겪고 몰레트하우스는 1층과 2층을 통틀어 총 4개의 구역으로 분류되는 공간으로 완성했다. 우선 몰레트가 어떤 곳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공간에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지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도록 유리창으로 입구 부분을 마감했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몰레트의 다양한 제품과 함께 타 브랜드의 지속 가능한 제품이 놓인 쇼룸이 있다. 쇼룸을 지나 안으로 들어오면, 몰레트하우스의 메인 공간이 나타난다. 메인 공간은 가구를 만들고 워크숍이 진행되는 작업실이다. 탁 트여 있어서 도구와 기계들이 작업대와 함께 일정한 공간을 두고 자리한다. ‘ㄱ’자 모양으로 설계된 2층은 작업실에 이어진 계단을 오르면 나타난다. 공유 사무실로, 공간의 중앙 바닥이 뚫려 있어 쇼룸을 내려다보며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다. 사무실에서는 주로 프로젝트 구상, 디자인 개발 등의 기획과 논의를 한다. 네 번째 구역은 바로 1층 쇼룸과 연결된 문으로 나가면 나타나는 외부 공간이다. 작은 뒤뜰처럼 주로 이곳에 팔레트를 보관하고, 몰레트에서 함께하는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배치해두었다. 사람들은 이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기도 한다.

스튜디오 곳곳의 파란색 포인트가 돋보인다. 몰레트의 로고 역시 파란 바탕이고, 나무가 지닌 색감과 더해져 경쾌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조화를 이루는 것 같다.

아르헨티나와 이스라엘의 국기에는 공통으로 파란색이 들어간다. 몰레트의 포인트 컬러인 파란색은 아르헨티나 국기의 파랑과 이스라엘 국기의 파랑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 파랑이 아르헨티나와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색이라고 할 수 있다. 텔아비브에 정착해 살면서 나의 국적인 아르헨티나를 잊지 않고, 나의 두 번째 도시인 여기 텔아비브에서 이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몰레트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다. 워크숍, 프로그램, 프로젝트는 또 각각의 카테고리 안에서 세분화된다. 특히 많은 사람이 몰레트의 워크숍으로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지속 가능성을 체험한다. 몰레트의 워크숍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다양한 워크숍을 기획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 디자인과 디자이너의 범주를 제한하고 싶지 않다.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모양이나 형태를 디자인하고 직접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고, 개인 고객을 위한 맞춤형 1.5시간, 2.5시간, 3.5시간, 5시간 등 제작 시간 및 기간에 따라 완성할 수 있는 제품으로 분류된 워크숍, 회사 등 팀으로 이루어져 제품을 만드는 워크숍, 친구와 가족을 위한 워크숍 등이 있다. 팀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 중에는 회사가 대상이 되기도 한다. 작년부터 회사들과 우호적으로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 직장인들은 일상 업무에서 벗어나 함께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창의적이면서도 양질의 팀워크와 업무 분담 역할을 구축할 수 있다. 이에 완성품에 대한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하나는 사무실과 집으로 가구를 가져갈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완성된 가구를 학교 및 청소년 센터 등 사회기관에 기부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경우다. 이런 활동은 사회에 긍정적인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워크숍을 통해 대부분의 사람은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느끼며 이곳을 나간다. 우리는 워크숍 자체가 ‘사고(思考)’만이 아닌 하나의 ‘명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물건을 창작하고 자아 존중감을 갖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팔레트 혁명(Pallet Revolution)’이라 일컫는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몰레트 워크숍에 참여하나?

누구든 몰레트에서 자신만의 도구와 가구를 만들 수 있다. 우리는 모두 환영한다. 특히 지역 주민,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가 몰레트의 회원이다. 다만, 몰레트에서 기획하는 워크숍의 성격에 따라 참여자층은 달라진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의 물건, 지속 가능한 물건을 직접 만들기 위해 이케아에 가는 대신 몰레트를 찾아온다.

지역에 남는 워크숍 하나를 소개해달라.

부에노스아이레스 지방자치 당국으로부터 워크숍 진행을 요청받은 적이 있다. 빈민가 사람들에게 목가구 제작 기술을 알려주고, 이를 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워크숍이었다. 그들이 우리를 만난 후 우리의 지식과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활용하기를 바랐다. 워크숍에 참가한 사람들은 서로 연대하고, 누군가는 작은 전기톱을 사서 독학하며 생활을 이어나가기도 한다. 스튜디오는 아이디어가 나오는 곳이고, 워크숍은 사람과 지역사회와 아이디어가 만나 누군가 지속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다. 몰레트는 '디자인적 사고, 신중한 태도로 임하는 제작' Design thinking, Mindful making 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결국은 주어의 대상을 떠나 어떤 디자인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중요하다.

프로젝트는 어떤 기준으로 기획하나?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가치철학을 전제하고 건축 및 디자인, 커뮤니티, 도시 업사이클링, 교육, 문화 모두 다섯가지의 핵심 카테고리 프로젝트로 세분화했다. 모든 프로젝트가 고유의 특성과 방식을 지니며, 각 카테고리는 그 속에서 공통으로 지속 가능하고 정직하며 참여적인 디자인을 통해 변화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개인의 환경을 재형성하고자 하는 몰레트의 가치관이 내재해 있다. 몰레트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디자인 및 생산 프로세스에 대해 재고하고, 나아가 자기표현, 창의적 탐색 및 혁신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리퍼포징 Repurposing, 기존의 것을 새로운 기능이나 목적에 맞게 제작하는 방식 기술을 사용해 세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제공한다.

최근 진행한 프로젝트나 몰레트의 대표적인 프로젝트를 소개한다면?

프로젝트 작업은 늘 몰레트의 가치관을 달성하기 위해 기술과 지식을 통합하는, 기관과의 협업을 중점으로 둔다. 몰레트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소개해보자면, 교육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매년 텔아비브의 보육원 8곳에서 3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업사이클 목재를 사용한 물건 디자인 및 제작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더불어 오알티ORT, 센카대학교 Shenkar College of Engineering and Design와 같은 교육기관과 협력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 외에도 아브라함 호스텔 Abraham Hostel과 함께 관광객이 지속 가능성과 업사이클링의 세계를 경험해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업계를 위한 지역사회 및 사회적 프로젝트를 확산시킴으로써 텔아비브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노력한다. 또 비정부조직 도시농경협회 Urban Farming Association와 협력해 몰레트하우스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 관련 지식을 창출·개발하고 있다. 도시농경협회와는 텔아비브의 가능성에 대한 공공 인식을 고취하는 하나의 도시농경센터를 만들기 위해 자체 정원과 파티오도 개발 중이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텔아비브의 지속 가능성을 발굴하기 위해 여러 사회·환경·문화 활동을 다양한 기관과 협업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의 참여를 이끄는 다양한 워크숍과 지역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확산하는 프로젝트 중심에는 버려진 팔레트가 있다. 팔레트로 업사이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버려진 팔레트를 재사용해 가구로 만듦으로써 나무를, 공간을, 환경을, 그리고 이 도시를 업사이클한다고 말할 수 있다. 리사이클이 아닌 업사이클인 이유는, 충분히 새롭게 쓰일 수 있는 팔레트라는 소재를 변형하지 않고 가구로 재탄생시키기 때문이다. 팔레트를 가져와서 분해하기는 하지만, 버려진 동일한 목재를 그대로 사용한다. 리사이클의 경우, 플라스틱처럼 유리를 가져와서 녹인 다음 새로운 소재로 만든다. 이런 방식을 리사이클이라 하고, 업사이클은 그보다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팔레트를 가구로 업사이클하기 위해서는 모듈 시스템을 거쳐야 한다. 모듈화를 통해 사람들에게 스스로 가구를 제작하는 것뿐 아니라 디자인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있다. 사람들은 여러 모듈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해 자신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가구를 만든다. 바깥의 몰레트하우스 앞 인도에는 작은 기둥들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늘어서 있는데, 이중 하나를 우리가 나무 스톨로 변형해 만들어놓았다. 이것이 대표적인 도시 업사이클링의 예라고 볼 수 있겠다.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환경이 우리의 활동들로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작은 실천이 도시에 긍정적인 변화를 몰고 온다. 도시와 사회를 개선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디자인적인 사고가 필요하며, 이 디자인적 사고는 업사이클을 통해 분명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작업 공간에서 즐겁게 웃고 있는 몰레트의 팀원들.

지속 가능한 사회와 도시로의 변화에 선구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당신이 바라볼 때, 이 도시의 사람들은 지속 가능한 삶에 관심이 있는 편인가?

최근 몇 년간 이 도시 사람들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다. 다수의 새로운 지속 가능성 벤처기업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텔아비브는 아직 완전히 지속 가능성을 선도하는 도시라고는 할 수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시민들의 집단 무의식 속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개념이 깊게 자리 잡지 않았고, 정부나 지방자치 당국에서도 해당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수단과 정책이 더 많아져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텔아비브의 집단적 관심과 잠재력은 대단한 것 같다. 텔아비브는 항상 혁신 정신을 지지하며 실천해왔고, 기업이 정신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성의 변화를 지향하고 감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지속 가능한 삶과 도시로의 변화 속에서 몰레트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나?

세밀하게는 몰레트가 문화적 교류, 창작, 타인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를 꿈꾼다. 일과 놀이의 경계가 흐려지고, 바빠 돌아가는 일상이 조금은 느려지고, 한편으로는 시간이 멈춘 듯한 장소 말이다. 더불어 이곳이 예술, 문학, 영화, 음악이라는 다양한 문화 장르와 지속 가능성을 접목해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면 좋겠다. 몰레트는 누군가가 자신의 뿌리이자 더욱 진정성 있는 삶으로 회귀할 수 있는 공간이다. 스스로를 표출하고 버려진 팔레트로 특별한 가구를 직접 만드는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며, 이런 관계망 속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자존감이 높아지는 공간이다. 몰레트는 지역사회와 힘을 합치는 동시에 건강하고 단단한 지역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역할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 지속해서 실천하고 있는 꿈은, 필요한 모든 장비와 환경을 갖추고 전 세계를 여행하며 디자인적 사고와 지속 가능성을 접목해 세계 곳곳에 조금씩, 그러나 분명한 변화를 일궈내는 것이다.



(좌) 2층에서 바라본 2층 작업 공간 입구. 이들의 지향점이 적힌 풋말이 입구 상단에 걸려 있다.

(우) 몰레트 하우스를 만들어가는 사람들.